

3/25(금) 삼상 27-31장 위기에 빠진 왕들

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.

이 전쟁으로 다윗과 사울, 둘 다 위기에 빠졌습니다.

다윗은 블레셋 망명을 통해 자유를 얻었지만(27:4),

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으로 난감한 처지가 됩니다.

하나님은 모두에게 명분을 잃지 않도록 다윗을 보호하십니다(29:4-10).

그러나 다윗 일행의 부재를 틈타 아말렉이 본거지를 침략했고

내부 갈등이 고조되며 리더십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옵니다(30:6).

사울은 전쟁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말씀이 없습니다(28:6).

제사장을 처형하며 종교계와는 담을 쌓았고 사무엘도 세상에 없습니다(22:18, 25:1).

그는 <신접한 여인>을 도구로 하나님 뜻을 찾는 모순을 범합니다.

종교개혁을 단행했으나 스스로 원칙을 무너뜨립니다(28:3,9).

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은 신접한 여인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(셰마, 15:22, 28:23).

사울의 물음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이(28:6),

다윗의 물음에는 즉각적으로 대답하십니다(30:8).

<말씀>을 들은 사울은 망연자실, 마지막 왕의 만찬을 먹고(28:24-25),

<말씀>을 들은 다윗은 다급한 마음에 힘과 용기를 얻어 진군합니다(30:6-9).

사울은 신접한 여인과 신하들의 말에 마음을 돌리지만(28:23),

다윗은 하나님으로 중심을 잡고 휘둘리지 않습니다(30:22-25).

다윗에게 찾아온 위기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.

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<아말렉 진멸>을 완수하게 하셨습니다(15:1-3 참고).

왕으로서의 승리와 앞으로 필요한 재원을 허락하셨습니다(30:26-31).

결국 사울 왕과 아들들은 전사합니다(31:6).

이제 이스라엘에 왕은 한 명입니다. 다윗, 왕이 귀환합니다.

위기에 빠질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?

① 나는 위기를 통해 무너지니까, 더욱 완성되어갑니까?

② 나는 위기에 빠질 때 신앙적으로 타협하니까, 신앙적으로 더욱 각성하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삼상 27-31장